

학생들이 바라는 성적평가

박 성 민 연세대 교육학과 4년

1. 들어가며

'솔로몬의 지혜'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옛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누구나 감복할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의 판결을 한 데서 온 것이다. 지금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따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법부의 재판 외에도 공정한 판결이 아쉬울 때가 많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서의 재판은 교수진의 성적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취업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이롭기만 하다. 예전과는 달라진 평가방법과 많아진 과제와 시험으로 한 학기를 보내고 난 학생들은 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적에 대해 민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적표를 받고 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성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평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왜 불만을 갖게 되는가? 학생들의 불만을 없애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성적평가를 누구나 인정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바라고, 교수는 모두에게 원하는 성적을 줄 수 없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딜레마의 원인은 변화된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달라진 교육환경

1) 대학 내부적 환경 변화

현재의 대학교육은 '90년대 초반과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대다수의 대학이 '96년 이후부터 학과가 아닌 학부제로 학생들의 모집진형을 바꾸었다. 현재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학과제로 입학한 학번들(대개 '92~'95)의 경우는 현재의 성적평가 방법과 학업이 입학시기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대나 어학연수 등으로 학교를 휴학했다 복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현재의 상황에 당황하게 된다. 학부제로의 전환 후, 평가 방식이 과거의 절대평가(준거참조평가)와 상대평가(규준참조평가)의 혼합방법에서 철저한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은 일종의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저학년이던 시절, 고학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받은 이들은 고학년이 된 후에 과거 고학년의 특혜를 누리지 못한 채, 저학년과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 상대평가로의 전환 이후, 교수는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성적평가를 위해 더 많은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학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학과 선택을 위해 유리한 학점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에 매우 민감한 입장이다.

2) 대학 외부적 환경 변화

IMF이후, 좁아진 취업시장의 문은 높은 대학성적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욱 어려워진 경쟁 속에서 보다 유리한 취업을 위해 학점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학기가 끝날때마다 성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이 같은 이유 역시, 상대평가라는 현실 속에서 한정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높이고 성적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학생들의 학구열을 증진시켜 실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으며, 그러나 이런 효과에 앞서 학생들이 성적평가에 대한 믿음과 교수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내부와 외적인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에 대한 높은 경쟁과 민감한 반응을 야기했다. 따라서 상황변화와 평가방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수진의 평가방법을 믿도록 하는 성적평가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경쟁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상대평가란 무엇인가?

성적평가의 투명성을 위해선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상대평가의 방식에 대해 성적 등급을 A, B, C, D, F로 나누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평가방식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인간의 능력이나 특성 모두는 다른 모든 존재하

는 사물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절대성 있는 공인된 성취기준에 비추어 본 측정 가능성이다. 상대평가는 전자의 입장에서 본 기준참조평가이다. 기준참조평가란 피평가자의 지위를 동일한 경험을 겪은 일단(一團)의 다른 피평가자로 구성된 집단의 성취에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집단의 성취는 곧 하나의 기준(Norm)이 되며,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모습으로 한 개인의 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집단의 성취점수가 하나의 기준 또는 자로서 변환되는 형태에는 예를 들어, 연령점수기준, 백분위점수기준, 표준점수기준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성취정도가 여러 다른 사람들의 또는 집단의 성취도에 반영되어 해석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지위 서열이 상대적으로 배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주로 상대평가라고 불려오던 이 방식은 성적 등급을 A, B, C, D, F로 구분해 놓고 각 등급마다 일정 비율의 학생을 강제로 나누어 분포시키는 평가방법이다.

물론, 현재 대다수의 교수진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간·기말시험등의 단순한 시험결과만을 가지고 학점을 주진 않는다. 시험 이외에도 보고서와 그룹활동, 발표, 수업참여도, 출석 등을 포함하게 된다.

4.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목표¹⁾달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평가의 기준은 설정된 목표가 된다. 교육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구로서, 교육에서 목표가 없으면 그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되며, 끝내는 교육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목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를 진술하는 이유는 교

1) 교육의 바람직한 성과

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목표는 교수자가 수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되고 학생을 학습을 지도하고 수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준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그들이 가르치는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진술하고 그 목표가 성취되도록 교수하며 그 목표와 일관성을 갖는 평가 방법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이 이런 교육평가의 이상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목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강의계획서의 교육목표는 이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있다. 과목의 특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어느 과목을 듣든지 동일한 평가방법이 시행되고, 교육목표는 몇 년전의 강의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교육목표를 뚜렷하고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일관성, 형평성 없는 평가방식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평가방식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1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다음의 불만내용은 10명 이상이 응답한 상위 5개 항목만을 선별한 것이다.

불만내용	응답자수(명)
1. 성적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	32
2. 강의계획서의 평가반영 비율과 실재가 다르다	16
3. 평가에 있어 친분관계가 반영된다	13
4. 상대평가는 등간 사이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	11
5. 수준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	10
6. 기타	18

1) '성적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

무려 32명의 학생들이 이 같은 불만을 토로한 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시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학기초 강의계획서

을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시험(60~70%), 발표 및 수업 참여도, 보고서(20~30%), 출석(10~20%)이 성적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험과 출석을 제외한 '발표 및 수업참여도'라는 기준은 어떤 명확한 잣대가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되고 있다. 우선 발표는 과목의 특성과 수강인원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강 학생 전원이 참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발표는 개인의 화술이나 역량에 따라 그 기술상의 차이가 있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어떤 학생의 경우는 화술이 뛰어나고 유머가 있어 발표를 뛰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같은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이 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물론, 교수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의 교수진은 전자의 학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 시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전에는 후자의 학생이 전자의 학생을 제치고 후한 학점을 받을 길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위해 시험대비를 철저히 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후자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그룹 발표의 경우에는 같은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능력과 학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이 같은 맹점은 교수진에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수진이 임의로 그룹을 편성하면 학생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성적평가 방식의 일부이므로 이에 따르게 되고 교수진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에 잘못 짜여진 그룹일 경우에는 개인별 역량과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그룹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참여정도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가 속한 그룹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평가가 매겨지는 것이다.

둘째, '수업참여도'의 문제이다. 수업참여도는 대개의

경우, 수업시간 중의 질의, 응답이 평가기준이 된다. 물론, 여기서도 개인의 성격차가 반영되게 된다. 자신의 흥미와 노력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점이 있겠지만, 저학년이나 여학생 또는 내성적인 학생들은 거의 이 부분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질의 및 응답은 대개 한정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외된 학생들은 자연히 성적평가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질의와 응답, 토론에의 참여도는 분명 수업진행에 중요한 요소이고,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참여유도나 보고서 제출 등의 다른 방법 없이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수진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성격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는 교수자가 제공하는 학습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보고서'의 문제이다. 대개 하나의 과목을 수강하다 보면 한 학기에 분명 한 두 편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시험대체나 발표대체, 또는 진단평가나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성적평가의 기준이 된다. 문제는 보고서의 평가기준이다. 물론, 대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삼겠지만, 학생들이 많은 과목에 있어서는 교수진이 그 막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어떤 경우는 단지 보고서의 제출여부와 양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만을 없애려면 사전에 보고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강의계획서의 평가반영 비율과 실재가 다르다'

이 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4년간 대학을 다니다 보면,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학기초 수업계획서에 없던 시험을 보면서 평가에 반영하는 일이나, 시험 대신 보고서나 발표의 비중이 올라가는 일 등은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학생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강의계

획서에서 성적평가에 있어 비중을 가장 크게 두었던 기준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해내고도 이런 변동상황 때문에 자신이 예상하던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수진은 학생들의 성적평가 방식을 강의계획서와 일치시키고, 매번 시험의 성적이나 발표점수를 직접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점을 가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에 있어 친분관계가 반영된다'

이 문제는 단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진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분명 친분관계가 있으면 사람은 그 친분관계에 이끌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적이 학생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진은 성적평가에 있어 가장 불평등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있어 학생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

대개 수업시간중, 교수진은 안면이 있는 학생들에게 질의나 의견을 묻고, 수업진행에 있어서 책임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분명히 다른 학생보다 수업진행에 기여를 하게 되므로 성적평가시에 가산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단순히 안면이 있고, 친분관계가 있어 교수진이 수업진행에 도움을 얻기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특정한 학생을 편애하는 일이 다른 학생들의 눈에 보여진다면, 그 교수의 성적평가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요구된다.

4) '상대평가는 등간 사이의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성적표가 나올때면 학생들은 두근거리며 자신의 성적

을 확인하고, 그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열심히 노력해서 당연히 좋은 학점이 나온 경우, 어차피 열심히 하지 않아 포기한 경우, 학점에 대해 억울해 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때때로 조교들에게 B, C학점의 상위 부분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의 맹점인 등간 사이에 걸렸다는 말이다. 이런 학생들의 점수는 상위 학점을 받은 학생들 중 하위권의 점수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등간 사이에 걸린 학생들은 자신의 학점에 대해 억울해 하며,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 제도는 이런 학생들의 문제를 안고 있다. 상대평가 제도가 학생의 지위서열을 성적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참조평가 방식이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교수진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점을 후하게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수진에게 무조건적인 상대평가만을 강요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측이 아닌 교수진의 고유한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진은 성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열을 매겨야 하는 상대평가 이외에도 부분적인 준거참조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학교측에 제시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 문제 역시 상대평가제도의 또 하나의 맹점이다. 상대평가는 매번 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수준차이는 반영되지 않고 서열척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확한 성취도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어떤 학기에는 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학기에는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이 높은 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기에 수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상대평가의 약점을 보완하는 준거참조 평가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보완책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수진이 학기초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게 되면, 수업의 진행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평가방식에서도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른 적절한 학점이 반영될 수 있다. 현재, 과목의 특성에 따라 체육과목이나 어학과목에서 이러한 선행평가에 따른 준거참조평가 방식이 일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 실정이다.

6. 학생들이 바라는 평가

1) 투명한 성적 평가

학생들은 무엇보다 배일에 가려진 있는 성적평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일부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시험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학과나 수강과목의 특성상 채점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이러한 시험 성적 공고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오히려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교수진에게 항의하는 모습의 잦아질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성적평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적평가의 모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평가의 전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시험의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발표나 수업참여도를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정함을 보여주어 교수진의 평가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성적평가에 있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친분관계의 반영이라든지, 채점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다.

2) 상대평가 방식의 보완

위의 해결방식으로만 학생들의 불만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 평가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상대평가의 약점을 보완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준거참조평가 방법의 부분적 도입을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교수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수진이 약점 보완을 위한 평가방법의 개선을 추구할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학교측은 교수진에게 평가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교수진은 이 같은 권리의 남용을 자제하고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의평가제와 더불어 교수진의 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떠한 방법과 이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실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학생의 성적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학교측이나 교수진은 단순한 편의만을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현행평가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학생들의 의견 반영

관료화된 산업 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구조였다.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상위계층으로부터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피드백(Feedback)하는 기회를 거의 상실했었다.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위한 일방적인 성취기준만이 제공된다. 물론, 교수진이 수강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풍부하여 성과 측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을 하다보면 교수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수업 진행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수업은 교수자가 주체가 되어 수업진행 방향을 설

정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부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평가는 교수자의 고유한 권리에겐 하지만,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동적인 방법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수강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개인차도 있으므로 일단 교수자가 천편일률적인 평가 방식으로만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과욕은 실질적인 평가의 장애물이 된다. 그런데 만약 유동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교육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의견 반영은 교육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며,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4) 평가방식의 다양성

현재의 평가방식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천편일률적이다. 과목의 특성이나 개인차 그리고 수업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고정화된 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현재의 평가방식에는 대개 교육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적·정의적·운동기능적 영역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현실적으로나, 많은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적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학년이 되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면 고정화된 평가방식에 적용하여 실력 이외의 요령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고학년은 실제의 실력보다는 이런 요령을 이용하여 좋은 학점을 따게 된다. '대학 학점은 요령이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말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학의 모습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인터넷 수업이 등장했고, 수없이 많은 신개념과 이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학습환경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평가방식은 그대로 둔다면 올바른 교육목적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편의에만 매달리고, 반발이 예상되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꺼리는 것은 결국 자신 수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 된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도입된 적이 있었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습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목표와 활동과 결과물을 가지고 성적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교수와의 협의에 따라 알맞은 학습계약서를 작성하여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평가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가지지 않았다. 물론 이런 평가방법이 정당이라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학생이 교수진의 평가방법을 믿고 수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수업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시도는 변화하지 않는 교수진의 평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7. 학습계약

교육은 단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는 수업을 위한 교육설계와 계획, 평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교수진은 수업시간의 내용전달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교수진은 특히, '평가'라는 칼을 쥐고 학생들에게 평가를 위한 수업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 대등한 위치에 놓여있는 평가가 수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평가는 교육과정 전체에 있어 수업에 대한 강화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업은 평가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더욱이 학생들이 불신하는 현실의 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수업에 대한 강화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만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 명확한 위치의 성인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면들이 많지만, 일단 그들은 성인의 범주에 속한다. 다시 말해 대학교육의 대상은 성인이다. 성인학습의 가

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자기 스스로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학습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특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험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를 위한 강제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대학 때는 다시 좋은 취업자리를 위한 성적을 위해 또 다른 강제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성인이라는 위치에서 공부하는 대학에서조차 수동적인 학습자의 위치로 끌려가는 것은, 이후 학생들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하는 평생교육적인 자질 형성에 방해가 된다. 그들의 학습은 학교를 떠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곳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마지막 제도권 교육이 된다. 여기에서조차 성인학습자로서의 자질을 형성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다시 말해 결과지향적인 태도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일생동안 교육을 평가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평가는 교수진과 학생사이의 학습계약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수진은 평가를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며 불명확한 기준의 평가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학습계약에 위반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평가는 계약을 완료시키는 단계의 과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교수와 수업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진이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능력향상에 목적을 둔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학습계약이 되는 것이다. 바람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 속에서 거의 차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에는 가깝고 친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학생들은 좀 더 많은 학창시절의 추억이 가지고 학교를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성민**

박성민

연세대 교육학과 4년 재학생이다.